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5호 [주제 제26179호] 주제 107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김용수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 국무
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지휘부의 지휘성원들이 영접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거리전경을
부감하시고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사현장이 들썩하고 혁명열,
투쟁열이 충천하며 모두가 용기
배배하여 새 위훈창조에 헌
진성한 부여되었을 뿐 건물들사이의
밀착으로 뛰어나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가
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

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한손의 다섯 손가락도 길고짧듯이

하였는데 아직도 거리형성전반이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세련되지
못하고 건물들이 독립적조형예술
성만 부여되었을 뿐 건물들사이의
밀착으로 뛰어나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가
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

었다.

변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예술적
변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예술적
예술성이 해결되어야 해양공원도
시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미니 드라마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8월에도 강조하였지만 30층
이상의 레스토랑, 호텔들을 더 추가배
치할것을 예전해야 하며 관광지구
당 및 근로단체위원회, 경영위원회

대한 파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번에도 강조하였지만 원림
특화사업을 건설사업 못지 않게
중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림설계를 해안거리특성에 맞게
특색있게 잘하고 원림조성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설리건설현장을 돌아보니 머지않아 비단 해안관광지구뿐만이 아니라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과 같은 설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1면에서 계속

인파십리로 변할 그날이 벌써 보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기념비적 방대한 창조대전에서 련속적인 하시면서 명사십리전역에 인민의 웃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는것만 같다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창조물들, 인민의 소유물들파 새로 성과를 확대해나가는것은 적대 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그

지금처럼 현장정치사업과 후방 드문 아름다운 우리 나라 동해기술 운 행복이 멈춤없이 일떠서고 창조 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종포화로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파감하

공급사업에 항상 주되는 관심을 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휴식의 한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되며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돌진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돌리며 공사장의 질서유지, 주변 를 보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결사전이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 전체 건설자들은 한없이 승고한

정리,로동안전대책, 각종 사고 상상해보느라면 힘이 나고 기쁨을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하고 꽂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 인민관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들에

방지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계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삶의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 대중적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자 터전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헌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나라사정이 의연 어렵고 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 를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투쟁과로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설계를 실행시키고 자제보장대책 긴장하지만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 하고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본때,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을 강하게 세우며 시공지도와 을 위해 투쟁함을 자기의 주되는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우리식 발전속도를 만천하에 다시 뜻을 반들어 원산갈마해안관광

건설감독사업을 한치의 양보도 투쟁과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한번파시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지구를 그 어디에도 비킬수 없는

없이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건설 새 세기의 문명을 개척하며 정확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의 락원으로 보란듯이 일떠

대상들의 공사가 설계상, 공법상 한 명도력으로 새 세계를 설계해 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했던 건설자 세움으로써 세계를 앞서나갈 포부를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도록 하여야 나가고있고 당의 명령지시라면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세상이 안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강옹한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 한번 놀라고 부러워할 인민의 문화 기상을 만방에 펼쳐갈 불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다시금 강조하지만 모든것이 어렵고 휴식미, 인민의 해양공원이 다음해 결의를 다지었다.

날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명사 단결된 힘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긴장한 오늘과 같은 시기에 원산 10월 10일을 맞으며 보란듯이 일떠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박창호



비롯한 내각상하성, 중앙기관들에 폐말기는 식으로 하겠다고 반영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당의 의도에 맞게 온천관광지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몇 달전에도 비판을 했지만 낡아빠진 휴양소, 료양소들을 불안하고 그 수준이 얼마나 뛰어지고 한심한지 조차 모르고 전혀 움직도 하지 않고 동면하고 있는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 및 료양기지 꾸리기와 관련한 기술과

동지, 김용수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남도 양덕군위원회 위원장 강일경동지, 국무위원회 일군들인 김창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데려온 군부대에 말거놓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일당백의 전투력으로 명성높은 군부대의 장병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온천관광지구건설에서도 또 한번 본때를 보이며 소문을 듣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와 편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관광지구건설총계획도 앞당기세충천하여 만만의 공사준비를 갖추고 대기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에서 구상한 대상건설을 힘있고 솜씨있는 이

이 대단히 많고 온도도 높을뿐만 아니라 주요성분이 단순규로, 류황, 불소-약알카리성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좋아 흔히온천료양 및 판팡지구를 꾸릴수 있는 명당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를 우리식으로 특색있게 하고 봉사사업을 잘하면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연구한데 기초하여 기술과제서

제서를 내놓겠는가고 하시면서 이 최고의 수준을 보장할데 대하여 사업은 당에서 직접 구상하고 민들의 문명한 생활향유와 건강증진을 위해 발기한 대상건설인것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관광지구가 료양소구획과 판팡휴양소구획으로 나누어 건설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맡아 정부병원과 긴밀히 협동하여 기술과제서를 작성하며 국무위원회 설계국

이 기본이 되어 설계를 진행하되 필요한 설계기관들의 능력있는 역량도 인입하여 강력한 설계집단이

달라붙어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국무위원회 설계국에서 제출한 온천관광지구건설을 위한 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4 면으로 계속



주제적 출판 보도물 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오늘은 당보 『로동신문』이 창간 된 때로부터 73돐이 되는 날이다. 갑회도 갖고 궁지도 크다.

당보가 걸어온 73년!

들이켜보면 그것은 절세위인들과 생사운명을 같이온 통지애의 역사이며 당시 위업을 끝대로 수호해온 경사운위의 역사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가 세상에 떠난것은 사상의 위해으로 백승렬 씨는 우리 혁명 역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이었다.

위대한 명도가 장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로동신문은 항상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향 대변자로서 당중앙을 옹위하여야 합니다.』

당보 『로동신문』의 전신인 『정로』 창간호가 나온 73년전

1월 1일을 끄새거보느라면 어버이수령님의 융성이 가슴뜨겁게 울려온다.

『정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보가 말입니다. 보았습니까?

자, 우리 당보를 보시오. 우리 가족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리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날 혁명군대가 위력한 투기를 가져야 적과 싸워길수 있는것처럼 우리 당시 당보와 같은 예리한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당보 『정로』는 당시 예리한 사상적부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것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역사의 그날은 우리 기자, 편집원들이 당보는 몇개 사단의 병력을 가진것보다 더 큰 위력을 나타냈을이라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오늘도

첫 자욱을 새긴 풋길은 남아있다. 정녕 잊을수 없다. 당증양형사에 당보의 첫 편집실이 꾸려졌던 사실을,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승용차를 취재용승용차로 보내주신 이야기며 수령님의 뜻을 담았어 배두산녀장군 김정숙통지께서 당보 전집발간사업을 위해 마치신 잊을수 없는 그 낚사 밤의 사연들을…

창간된 첫날부터 당시 사상파의 도를 인민대중에게 깊이 심어주고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한 우리 혁명의 역사적단계들마다에서 고양자, 동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손잡아 들어온 주인공이었다.

당보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따라 더욱 기들이 성장하였다.

주제 8제 (1999)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임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보 사설혁명을 하면 때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당보에 사설혁명의 볼풀을 지펴올리시고 린이 어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이라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일에 1970년대에 당보에서 사설혁명, 신문혁명으로 불길이 라온 것은 당보가 수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이나가는 데서 참으로 의의 깊은 사변이었다.

그날 당보의 갑격적인 평정을 그대로

찬란히 빛을 뿐이고 있다. 당보의 영원한 스승으로 영생 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도 당보집단이 변함없이 명도자의 동지로, 전우로 당파 함께 혁명의 길을 뚫듯이 걸어가도록 멀티어주고계신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하루일과를 『로동신문』을 보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시며 자신의 방에도

『로동신문』을 보시는 수령님의 사진이 모셔져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당보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따라 더욱 기들이 성장하였다.

주제 8제 (1999)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임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보 사설혁명을 하면 때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당보에 사설혁명의 볼풀을 지펴올리시고 린이 어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이라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일에 1970년대에 당보에서 사설혁명, 신문혁명으로 불길이 라온 것은 당보가 수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받아들이나가는 데서 참으로 의의 깊은 사변이었다.

그날 당보의 갑격적인 평정을 그대로

창립의 나날 유격대 사령부의 나팔수처럼 당보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철군군대를 뮤어세우고 내중을 당정책 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당증양의 나팔수, 당시상선전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풍이였다. 그제 깊은 팔과 이른 새벽에도, 땅질날과 일요일에도 당보의 주의붉은기가 휘날리는 우리 당시의 사상전지를 견고히 지키았다.

준엄한 시련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당보기자들과 함께 계시였다.

지금 당시에 제일 충실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기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 밀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 온정같은 사랑에 어찌 뜻을 편심

들이 세하게 끌지 않았으랴.

우리의 기자들을 글쓰는 친구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면서 색다른것이 한가지 생겨도 먼저 안겨주시고 좋은 글을 많이 쓰라고 친히 자료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떠나 어찌 천만대 중의 실금을 올려는 시대의 결과들이 려여날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당시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의 재능을 키워주시고 열정을 최상의 높이에로 놓여지며 주시고 그 모든 공로를 문필가들이 고스란히 둘러주신분, 글을 잘 쓰는 동부들은 영웅이라고 크나큰 밀음을 안겨주시면서 기자들의 위해 절원과 생활상문제에까지 깊은 관심을 둘러주신 어버이였다.

스승이 되여 글쓰는 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며 기워주신분, 좋은 글감을 주시며 세심히 지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공로를 문필가들을 시대의 결과들이 려여날수 있었겠는가.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의 갑격적인 평정을 그대로

견하는 숭고한 기념비적회복이 오늘도 당보청사구내에 빛나고있다. 이렇게 사용으로, 협연으로 위대한 장군님과 글을 해야 글을 수 없이 굳게 결속된 당보는 춘엄 하였지만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당증양의 제일나팔수가 되여 사회주의붉은기가 휘날리는 우리 당시의 사상전지를 견고히 지키았다.

준엄한 시련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당보기자들과 함께 계시였다.

지금 당시에 제일 충실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기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 밀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 온정같은 사랑에 어찌 뜻을 편심

들이 세하게 끌지 않았으랴.

우리의 기자들을 글쓰는 친구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면서 색다른것이 한가지 생겨도 먼저 안겨주시고 좋은 글을 많이 쓰라고 친히 자료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떠나 어찌 천만대 중의 실금을 올려는 시대의 결과들이 려여날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당시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의 재능을 키워주시고 열정을 최상의 높이에로 놓여지며 주시고 그 모든 공로를 문필가들을 시대의 결과들이 려여날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당시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의 재능을 키워주시고 열정을 최상의 높이에로 놓여지며 주시고 그 모든 공로를 문필가들을 시대의 결과들이 려여날수 있었겠는가.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당시 당보의 헌화를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 세대 기자들을 키우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주민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사미팅에서 나서시었을 때였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줄줄이 흐르는 눈물을 걸지 못하며 순식간에 그이를 접견이 에워쌌다.

그날

민족의 기상이 어린 우리 조국의 자랑 소나무

봄과 여름에 넓고 푸른 일새봉
사랑하면 하많은 나무들이 한줄
기 바람만 불어도 마르고 서는 일
들을 우수수 때리는 그 날기운이다.
하진 만 수도의 한복판에 솟아 있는
모란봉은 여전히 청진한 풍
기, 풍치수여 한 모습으로 찾아오
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거리에는
운동복처럼 사람들 손에 책을
든 사색질은 표정의 대학생들, 큼
직한 화관을 들려며 미술가들...
그들 속에 섞인 우리도 모란봉의 정
위를 세게 안으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금이 굽이 뻗어간 길을 따라 오
르면 오솔수록 가슴이 평화로운
스마트는 신그러운 향기, 그것은
다름아닌 사시창설 푸르른 소나
무들의 향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소나무는 조선의 기상입니다.』

우리 나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평양의 명승지로 소문난 모란봉에
도 소나무들이 많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지어 주신 평
화성과 승리각, 모란쪽, 청류쪽과
주변에서도 소나무들은 양성 기상
파를 뿜는 지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단물이 음즈리드는 후원 계절
에도 새찬 바람을 맞았던 푸른 일

평양의 명승 모란봉의 푸른 숲을 돌아보며

투성한 아지를 짚고 거연히 서
있는 모란봉의 소나무들,

우리는 그윽한 소나무향기를
한가슴에 암으며 알마전에 맛았던
중구역 모란봉청년공원관리소
지배인 장원복동무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해방된 이듬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등지, 어리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모란봉을 찾으시

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기제에 달려온 풍물, 잘린
그늘을 그려내고 그늘을 차아
냈다. 두활벌려 소나무를 압아보

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성한 아지
들이 흘러들어 소나무를 사색
깊이 지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벌써 화관을 펼쳐놓고
활터진 편지로 속사를 하고 있었다.
데종강구역에 살단다는 한 미술
애호가가 자기는 매일같이 모란봉
에 올라 수많은 소나무그림을 그
려왔지만 소나무에 달려온 우리
민족의 기상과 품성을 그려내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모란봉을 지나 걸더라도 그는 통
선을 오르는데 누군가가 여기에서
구호문이 나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흥미를 자아낸 새
회제의 임자는 모란봉이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다는 한 표인이었다.

그는 속력을 더듬었다.

『수십년전에 이곳에서 《조선
독립》, 《조선은 광복된다》 등
의 글들이 죽어진 구호문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구호문들이 다

라는 격언이 나을 정도로 우리 인
민과 깊은 인연을 맺은 소나무들
도 수많이 풀려버리게 되었다.

관리소현학자료에 의하면 나무
심기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진
1970년대의 몇몇 통일에 앤도
2년여 그의 바늘과 나무들을 심
었는데 그중 1만 3,000여 그
루가 소나무였다고 한다.

결과 올밀과 좌석대, 모란대
등 명승지의 곳곳에 많은 소나무
들이 자리에 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학지점 학
원동물들과 함께 오르시며 친히
그림을 그리신 그림터 주변에도 무
수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
해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사랑해
온 소나무들을 마구 썼던데 그
참혹한 자혹은 평양의 자랑인
모란봉에도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
무를 많이 심을 때 대하여 교시하
시였다.

그후에도 모란봉을 찾으실 때
마다 사설 푸른 나무들을 비롯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지어 주신 평
화성과 승리각, 모란쪽, 청류쪽과
주변에서도 소나무들은 양성 기상
파를 뿐만 아니라 모란봉에는 수
백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함께 조선
사람은 소나무속에서 놀라울 푸른 일

속에서 살고 소나무속에서 죽는다
는 이야기를 실어나서 놀랐다. 그때에 알고보
니 그들의 일터는 서로 달랐다.

누구는 소성장에서 또 누구는
조합원로 직장에서...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
는 이곳으로 끌려온다는 것을 증명해
당이 세시한 예술의 대중화방침의 생
활력에 대해 깊이 짚을 수 있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그날에 있었던 일
들이 회복처럼 펼쳐졌다.

우리는 기업소의 자랑인 그 주인
공장을 대체 구조적으로 알고싶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 열리는 노래경연
에서는 우리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
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정문옆에
있는 대형속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놀라운 생상성
파와 외분들이 아니라 제 1차 2차 전
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으로 대
등장 4종중종에서 단연 1등을 했
다는 소식이 죄여있었다.

한국 종종동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사랑할뿐이었다. 결승전에서 김설경동우는 노래를 끄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래경연에서 가슴
부듯이 압록했다. 하여 우리는 문화회
관으로 향했다.

『온 기업소가 노래경연소식으로
찾은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곳에 도